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
배 포 일	2018.6.12.(화) / (총 6매)	담당부서	감염병 관리과
과 장	조 은 희	전 화	043-719-7120
담당자	이 윤 희		043-719-7111

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,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◇ 2018년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 발생(59세(남),간 질환자,인천 거주)
- ◇ 어패류 익혀먹기, 바닷물 접촉주의(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), 어패류 5℃ 이하 저온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올해 6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.
- 환자는 B형간염을 동반한 간경화를 기저질환으로 앓고 있으며, 현재는 항생제 치료로 패혈증은 회복된 상태이며, 환자의 위험요인 노출력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중이다.
- 비브리오패혈증은 간 질환자, 알콜중독자,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 주로 발생하며, 치사율이 50%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.

< 비브리오패혈증 고위험군 >

간 질환자, 알코올중독자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 자, 악성종양, 재생불량성 빈혈, 백혈병 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 환자

-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6월~10월경에 발생하기 시작하여,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, 주로 어패류섭취 또는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에 의해 감염된다.
 - 올해 3월 전라남도 여수시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된 후 전남, 경남, 인천, 울산의 해수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바 비브리오패혈증 발생도 지속될것으로 예상된다.
- 질병관리본부는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.
 - 특히, 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.
 - 첫째,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는다.
 - 둘째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 - 셋째,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.

- ◇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- ◇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.
 - * 어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동안 더 끓이고,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이상 더 요리해야 함
- ◇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◇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◇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
- <붙임>
1. 비브리오패혈증 개요
 2. 발생통계
 3. 질의응답
 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 5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붙임 1

비브리오패혈증 개요

정 의	□ 비브리오 패혈증균(<i>Vibrio vulnificus</i>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
질병 분류	□ 법정감염병 : 제3군 □ 질병코드 : KCD-7 A 41.52
병원체	□ <i>Vibrio vulnificus</i> - <i>Vibrionaceae</i> 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-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발견
병원소	□ 해수, 해하수, 갯벌, 어패류, 사람은 주로 기회 감염됨
전파 경로	□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□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
잠복기	□ 12시간 ~72시간
증 상	□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, 1/3은 저혈압이 동반 □ 대부분 증상 발생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, 주로 하지에 발생 - 피부병변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
진 단	□ 검체(혈액, 대변, 소변, 직장도말물, 구토물, 수포액, 피부병변, 조직)에서 <i>V. vulnificus</i> 분리 동정
치 료	□ 병변절제 :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□ 항생제 치료 : 3세대 세팔로스포린, 플루오로퀴놀론,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
전염 기간	□ 사람 간 직접 전파는 없음
치사율	□ 균혈증 진행 시 50% 내외 □ 저혈압 진행 시 90% 내외
관 리	<환자 관리> □ 환자 격리는 불필요
	<접촉자 관리> □ 접촉자 관리 : 불필요 □ 환자와 의심 감염원에 함께 노출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
예 방	□ 일반적 예방 -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(특히, 고위험군 환자) -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, 바닷물에 접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

붙임 2

발생통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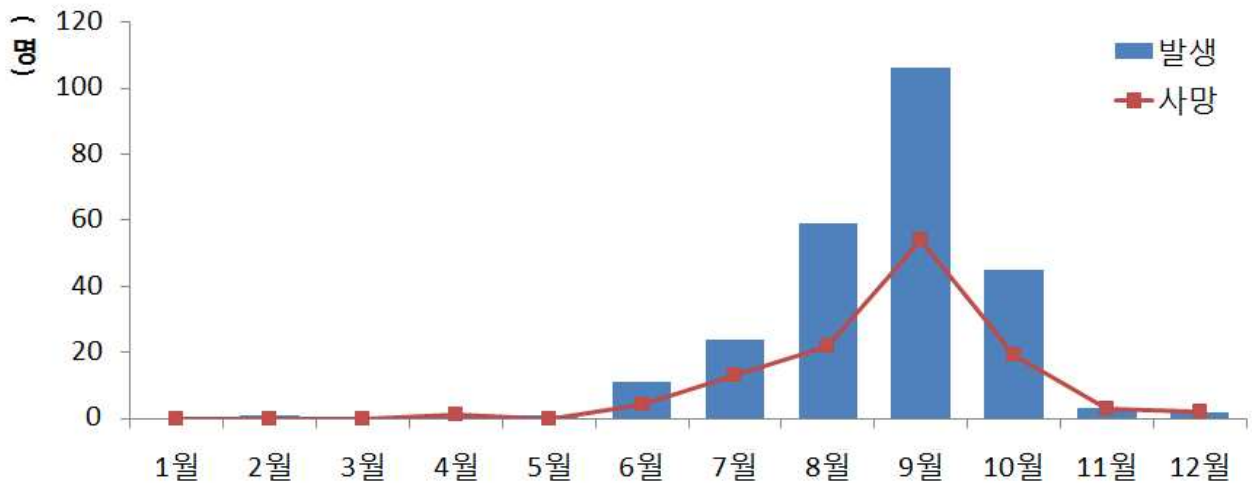
□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

(단위 : 명)

연도 \ 월	발생건수 (사망자수)	연도											
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'18년	1(1)	0	0	0	0	0	1	-	-	-	-	-	-
'17년	43(22)	0	0	0	1(1)	0	2(1)	3(1)	13(8)	17(9)	7(2)	0	0
'16년	56(12)	0	1	0	0	0	2	5(2)	20(4)	17(4)	9(2)	1	1
'15년	37(13)	0	0	0	0	0	5(1)	5(2)	4	17(7)	5	1(2)	0(1)
'14년	61(40)	0	0	0	0	1	2(2)	6(5)	10(4)	32(21)	9(7)	0	1(1)
'13년	56(31)	0	0	0	0	0	0	5(3)	12(6)	23(13)	15(8)	1(1)	0
'12년	64(37)	0	0	0	0	1(1)	2(1)	5(2)	10(6)	28(18)	16(8)	2(1)	0

* 2016년 2월 발생 건은 해외유입 사례이며, 2017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

○ 5년('13~17년)누적 월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및 사망 현황



□ 2017년 비브리오패혈증 신고 환자(43명) 위험 요인

- (기저질환) 간 질환자 24명(55.8%), 당뇨병 14명(32.6%), 알콜중독자 10명(23.3%) 등
 - * 간경변증, 간암, 간염
- (노출력) 어패류 섭취력 23명(74.2%) 등
 - * 무응답 12건 제외한 31명 대상

붙임 3

질의응답

1.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?

- 비브리오 패혈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.

2.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증상은 무엇인가요?

- 급성 발열, 오한, 혈압 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합니다.
-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, 병변의 모양은 발진,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,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합니다.

3.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

-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며,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.

4.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,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. 특히, 고위험군(간질환자(만성 간염, 간경화, 간암)), 알코올 중독자,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℃ 이하로 저온 저장, 85℃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.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해야 합니다.

5. 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

- 적절한 항생제복용을 통해 치료하고,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.

붙임 4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

비브리오패혈증 예 / 방 / 하 / 기

2017. 5. 1.



Vibrio vulnificus sensu lato

01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습니다.

02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습니다.

03 어패류 관리 및 조리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킵니다.

<p>어패류는 5도 이하로 차온 보관합니다.</p>	<p>+9분 더 끓이기 +5분 이상 요리</p> <p>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하여 익힙니다.</p>	<p>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도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.</p>
<p>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합니다.</p>	<p>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합니다.</p>	

※ 특히, 고위험군은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도록 합니다.
 ※ 간 질환자, 담낭염,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, 무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복용 중인자, 만성용량 자생혈량성 빈혈, 백혈병환자, 장기이식환자, 면역결핍환자



붙임 5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카드뉴스



2018.05.24 질병관리본부
KCDC



**만성 간 질환자, 당뇨병, 알콜중독자 등
기저질환자는 치사율이 높으니 더욱 주의!**

***고위험군 치사율 : 50% 내외**

2018.05.24 질병관리본부
KCDC

비브리오패혈증 증상

 급성 발열	 오한	 혈압 저하
 복통	 구토 및 설사	 피부 병변

2018.05.24 질병관리본부
KCDC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수칙

일반적 예방

-  어패류는 **충분히 익혀** 먹기
- 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
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

어패류 관리 및 조리 시

-  5°C 이하로 저온 보관,
85°C 이상 가열처리 하기
- 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
(해수 사용 금지)
-  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고,
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